

민주, 서울시장 후보 '고민되네'

先 정당후보 선출·後 아권통합경선 가다... 25일 당원투표

박원순 독주 속 불출마 잇따라... '마이너리그' 경선 우려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아권 후보단일화가 '선(先) 정당 후보 선출, 후(後) 통합경선'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을 타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권 후보군 가운데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어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통합 경선에서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은 현재 상황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는데 당내 경선 흥행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14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거쳐 오는 25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는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치러 통합경선에 나설 당 후보자를 선출한다.

그러나 당내 유력주자였던 한 전 총리가 지난 13일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흥행에 비상이 켜졌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원

해영 의원은 후보 등록 첫 날인 14일 출마 포기를 공식화했다.

박원순 정책위의장은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여전히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의원은 후보 등록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출마 여부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천정배 최고위원은

출사표에 앞서 핵심공약을 최종검토하고 TV토론 준비에 시간을 쏟았고, 신계륜 전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진보정당 등에서 거론되는 경선주자들이 아권 통합경선에서 박 변호사와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자칫 '마이너리그' 경선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손학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중적 명망이 높은 우리 당의 잠재적 후보군이 적극 참여해 민주당의 경선이 성공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경선 참

여를 독려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박원순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많은 분이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본격적인 경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경선비용도 담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앞장서서 지지율이 높은 박원순 변호사에 입당을 요구하는 등 러브 콜을 보내는 상황에서 자체 경선의 동력이 생겼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여 서울시장 후보 '빅매치 경선' 추진

당내·영입 인사 '1대 1' 양강구도 방안 모색

한나라당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최고위원의 대선론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치권을 강타한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며 최대한 후보 선정을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내달 6일 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후보 선정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단일후보를 모색 중인 아권의 기세를 꺾기 위해 당내 인사 1명과 외부 영입인사 1명의 '양강 구도'로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내달 4일을 경선 'D-데이'로 잡고 체육관을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인사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나경원 최고위원과 서울시장 경선출마를 선언한 재선의 김충환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초선의 권영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차출론이 무산되는 등 거물급 인사 영입작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나 최고위원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조짐이다.

당내에서는 지난 4·27 분당을 재보선에서 다른 후보를 찾다 여의치 않자 막판에 강제섭 전 대표를 내세웠다. 패한 약동을 피웠던 그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경선을 통해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면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원순 서울시장 '열공'

18~19일 출마선언 앞두고 비전·공약 준비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 선거 공식 출마선언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18, 19일째로 예상되는 출마선언 때까지 가급적 대외 행보를 최소화하면서 내부적으로 서울시장에 대한 비전과 공약을 준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측근인 윤석인 회계제작소 부소장은 14일 "여러 전문가나 정책자문 그룹을 두루 만나 정책을 가다듬는 일정을 주로 보내고 있다"며 "한 마디로 '열공'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사람·공동체·생태계를 키워드로 하고 서울시의 복지 확대, 과도한 부채 해소 방안 등에 중점을 둔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서울지역 폭우로 피해를 본 전원마을을 방문해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민들의 삶을 그린 '빨래'라는 연극을 관람했다.

윤 부소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변호사의 지지율이 선두에 있지만 여론조사에 일회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박 변호사의 비전과 공약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파고드느냐가 관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아권 통합후보 선정방식이 각 당의 경선 후 통합 경선을 치르는 '투 트랙'으로 결정됨에 따라 후보단일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선률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상에는 대리인을 보내기로 했으며, 안팎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영 지사 "민주 서울시장 후보 내야"

'박원순 영입' 더 고민을... 아권연대 총선이후 추진 바람직

박준영 전남지사는 1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후보를 내야 한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주장했다.



아권 통합 및 연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자칫 민주당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지사는 14일 출민기자 간담회에서 '박원순 변호사의 영입'에 대한 질문은 "박 상임이사와는 참여연대 활동 당시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박 이사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기 후보를 내지 않게 되면 민주당이 당으로서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했다. 제1야당이면서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변변한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데는 유권자가 정권을 맡을 정당으로 취급하겠느냐는 것이다.

박 지사의 발언은 민주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한데다, 박원순 변호사마저 민주당 입당을 거절하면서 스스로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지사는 또 민주당의 '통합과 연대' 주장에 대해서도 그 방식과 시

기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상태인데는 당이 '좌클릭'만 하면서 그쪽 인사들만 통합과 연대를 하러니 그렇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지지도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지사는 이어 "민주당이 아권통합을 이유로 가능한 '카드'를 모두 내놓고 있으며, 결국 이 같은 정책 판단은 민주당의 위기, 호남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지금 상황에서는 아권연대를 말하기보다 총선에 집중해야 하고 아권연대는 이후,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류우익·김금래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4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여부와 류 내정자의 대북·통일 관 등에 대한 검증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재산세·자동차세 체납, '보

은·코드인사', 아들 특혜제외 의혹,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을 문제삼으며 도덕성 검증에도 열을 올렸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의 이날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아과

트 다문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민주당은 김 내정자의 배우자인 송창원 금융결제원장이 아파트 2채를 구입할 때 다문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차액을 탈무한 의혹이 있다며 공세를 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주승용 "적십자 회비 환불액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민·여수) 의원은 14일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적십자 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까지 일반 회비 환불액이 1억1050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환불액 5823만원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연말까지 환불 신청이 계속된다면 전체 환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적십자사가 공공성을 저버리고 수익을 위해 서민이 이용하는 지방 적십자병원을 폐원하고, 아티지진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국민이 모은 97억원의 성금 중 68억원을 이자놀이로 쓴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률 안 지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민·광산) 의원은 14일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률로 명시된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260개 공공기관 중 법정 장애인

고용률 미달 기관은 전체의 65%인 169개에 달했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전체 직원의 3%, 기타 공공기관은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81개 정부기관 역시 전체의 44%인 36개 기관이 법정 장애인고용률(3.0%)을 준수하지 않았다.

대형할인점 3사 대표 국감 증언체택

대형할인점 3사 대표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지역 상권과의 상생 문제로 국정감사 증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마트·최병렬·홈플러스·세스타·롯데마트·노병용 대표이사에게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예정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증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이들을 상대로 SSM의 지방 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6월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새로 매장을 낼 때의 제한 범위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됐음에도 지역 상권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와 사업 계획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함평다이내스티CC
사원모집

세계적 푸르른 양산디의 명문골프장인 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분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식음료팀 (정규직)	남, 여 (00명)	조리사 웨이터 웨이츄러스 주부사원	경력, 신입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3. 복지제도
기숙사 제공, 1일3식, 4대보험, 년차휴가, 주1회 휴무 하계 및 동계휴가, 교통비지원, 기업상해보험가입 등

4. 접수방법
■ 우 편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번지 경영지원팀
■ 팩 스 : 061-320-7710
■ E-mail : seungtae01@naver.com
■ 전 화 : 061-320-7717(오승태)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유성체팅의 신기원
대한민국 최초!
무료음성커뮤니티

진실입니다!
그동안 비싼 060 정보이용료나 고객의 회원가입비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음성채팅서비스 아젠 애플이 되었습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정보이용료 0
회원가입비 0

일반 전화요금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추가비용이 단 1원도 없이 그냥 일반요금입니다. 직접확인하세요!

휴대폰만 사용 가능합니다. **1688-7958**

보급요금 >>> 01년 음성소실량 >>> 07년 여행정보 >>> 12년
연인만들기 >>> 03년 매너교육 >>> 10년 1:1대화방 >>> 19년

14년 전통 하트폰

가입문의 062-526-7958 전국 최저요금제
여성무료 080-331-7958

305일 24시간 비회원도 연결

소자본, 무점포, 고소득 ARS사업자 모집 **010-3608-2888**

부실채권(못 받은 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못 받은 돈

- 선수금 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 금액의 30% 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 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김정수)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둔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큐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치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4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 **010-7705-2535**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